

국내외 불교문화, 한 자리에 총 출동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현장

“어머~ 없는데 없네. 오랫동안 신형 생활을 해왔지만 불교와 관련된 문화상품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전혀 몰랐어요.”

3월 24일, 불교박람회 구경을 위해 이른 아침 전라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온 정민숙(45) 씨는 행사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지방에서 말로만 듣던 박람회를 직접 찾아와 체험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불교관련 문화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 씨와 같이 온 지인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했다.

불교문화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박람회인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4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27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불교박람회에는 280여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급 위용을 자랑했다.

박람회는 총 3관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관은 ‘마음이 쉬는 공간’으로 불교관련 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산업전을 선보인다. 불사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방과 시공업체 등 150여개 부스가 마련돼 있다. 제2관은 ‘예술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BAF)을 필두로 한 예술전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3관은 ‘여유를 만드는 공간’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각종 체험과 관련 상품 판매 등이 이뤄진다.

올해 박람회 대주제는 ‘마음이 쉬는 공간·불사’다. 세상살이에 지친 중생들을 위해 곳곳의 도량이 문 열고 있다는

의미로 불교에 잘 어울리는 주제다. 이에 맞춰 국내 불사관련 산업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그래서 주제전도 전통사찰건축의 대가인 최기영 대목장전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전시가 눈길을 끌었다. 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세운 묘엄 스님을 기리는 ‘우리스님, 묘엄 스님전’과 가상현실기술의 관심에 따라 마련된 ‘360VR’, 불교미술계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 ‘청년불교미술작가전’ 등이 그것이다.

280여 업체 참가... 최대 규모 신규 전시회에 관람객 큰 호응 만들기 체험은 ‘스테디셀러’

제2관에 부스가 마련된 묘엄 스님전에는 수원 봉녕사가 소장한 묘엄 스님 유품 및 사진자료가 공개됐다. 생전에 묘엄 스님이 사용한 안경과 다구, 가사장삼 등이 전시됐으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도 공개돼 비구니스님과 우바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법명을 밝히지 않은 한 비구니 스님은 “묘엄 스님은 비구니계의 큰 어른으로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으셨다. 가까이서 뵈지 못했지만 그 업적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렇게라도 스님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문화와 첨단 IT기술의 접목을 선보이기 위해 참가한 (주)다나의 ‘360VR’은 많은 불자들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얻었다. 다나 측은 이번에 불교사와 송광사, 청암사에 대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했다. VR기기를 장착하면 예불이 진행되는 법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불교박람회에 처음 왔다는 유인재(22) 씨는 “재밌고 정말 참신하다. VR기기는 처음 체험해본다”면서 “법당에서 스님들과 예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대중(주)다나 대표는 “불교가 과학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기술이 개발될수록 아이들 교육용이나 불자들의 편의성 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의 또 다른 축인 붓다아트페스티벌(BAF)은 어느 해보다 젊은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막연히 불교는 무겁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편안한 그림체의 작품과 불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서도 동국불교미술인회의 ‘혈족보리전’과 현대미술특별전 ‘모던붓다전’은 자본주의 사회에 얼룩진 정신적 가치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돕는 불교이미지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박람회에는 중국 사면(廈門) 국제불사용품전람회 측 업체와 푸젠성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주)다나가 마련한 ‘360VR’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VR기기를 착용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 예불이 진행되는 법당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측 업체, 대만 불광산사 분원 서울불광산사,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등이 참여해 해외불교를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도 펼쳐졌다. 또한 이전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만들기’, 봉은사의 ‘연꽃 만들기’ 등 체험전은 올해에도 관람객들이 붐볐다.

우관 스님의 ‘연잎밥 만들기’를 체험한 류선순(58) 씨는 “친구 소개로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청주에서 올라왔다. 올해 불교대학에 입학하며 관심이 생겼다”며 “행사 분위기가 편안해 좋았다. 여기서 배운 레시피를 통해 집에서 사찰음식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외무대 오색실 커팅에 이어 내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공동운영위원장 지홍·주경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 문화예술적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다. 중국·일본·대만·스리랑카 등 이웃나라가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가 거듭난 불교박람회가 문화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붓다아트페스티벌’이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불교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취기를 바라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서 “불교문화는 수천 년 우리 민족의 긴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모든 예술과 생활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빼놓고는 우리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불

교문화는 우리 역사와 문화 전반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세계로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주 스님의 캐릭터 ‘다워니 발원이’를 종이와 친구로 꾸민 작품. 이외에도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다.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내빈들이 우리나라 전통색상인 오방색을 표현한 오색실 커팅을 하는 모습.



조계종 자승·천태종 준광 총무원장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내빈이 차담을 나누고 있다.

석가(釋迦) 품은 53見

전서출판 양산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대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삼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회엄경..
제6見 참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화엄경_7행시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 도서출판 양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잘관리 판매중입니다